

내 용 : 『노동리뷰』 8월호 - 특집

■ 최근 고용동향 및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황수경 · 정성미)

-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5년 상반기 고용사정은 매우 불안정
- 취업자증가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0.9%포인트낮은 1.2% 수준. 취업자 중에서도 일용직, 30시간 미만 취업자, 일시휴직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가. 특히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서의 고용 감소로 서민층이 체감하는 고용사정 더욱 악화
- 산업별 생산과 고용창출의 관계를 분석하면 양자간 괴리현상 발생
- 성장기여도가 큰 제조업의 경우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용 없는 성장'의 전형을 보여줌. 제조업 다음으로 고용비중이 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생산과 고용 모두 위축
- 최근의 고용성장 업종에서는 생산증가가 고용증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감소. 이들 부문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되고 있을 가능성 제기
- 2005년 하반기 취업자 증가는 1.6%(369천명)수준으로 전망(경제활동참가율 62.4%, 실업률 3.6%, 고용률 60.2%)
- 연간으로는 경제활동참가율 62.1%, 실업률 3.7%, 고용률 59.8%.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연초 전망치(경제활동참가율 62.2%, 실업률 3.6%, 고용률 60.0%)보다는 참가율과 고용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근소하게 상향조정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smjung@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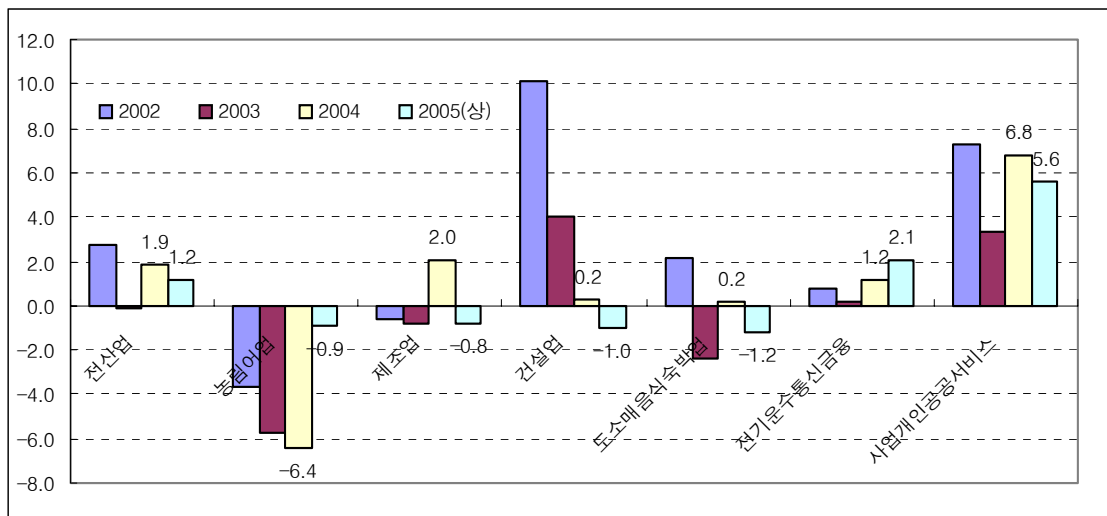
최근 고용동향 및 2005년 하반기 고용전망

담당자	황수경 연구위원 정성미 연구원
전화	02)783-7155

- 2005년 상반기에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과 전기·운수 및 통신·금융업을 제외하고 전산업에 걸쳐 고용이 위축됨.
- 특히 고용비중이 큰 제조업(19.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6.2%), 건설업(7.6%) 등에서의 고용감소로 체감고용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생산비중의 약 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고용없는 성장'의 전형을 보여줌
- 음식숙박업은 대형화·전문화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도소매업은 영세자영자를 중심으로 당분간 위축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산업별 취업자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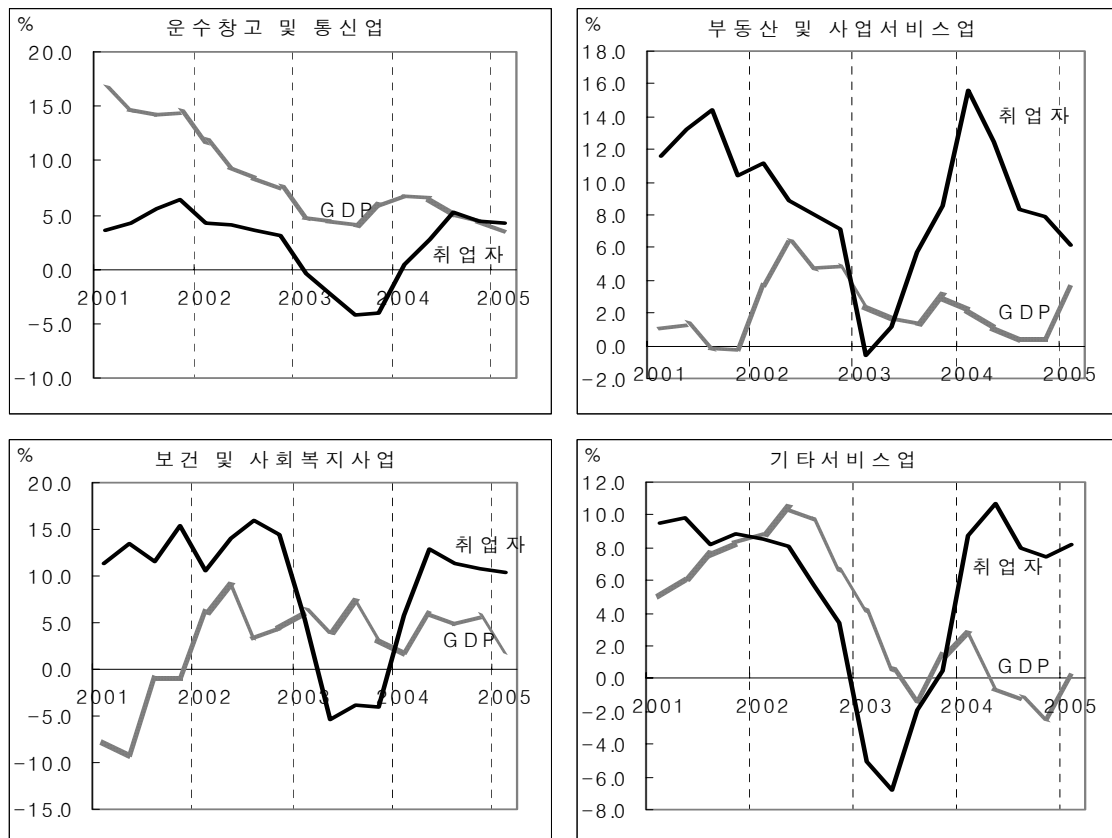


주: 2005년 상반기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제외하면 생산증가가 고용증가에 못 미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등 저부가가치 부문으로 집중됨.

[그림 2] 주요 업종에서의 생산 및 고용변동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호;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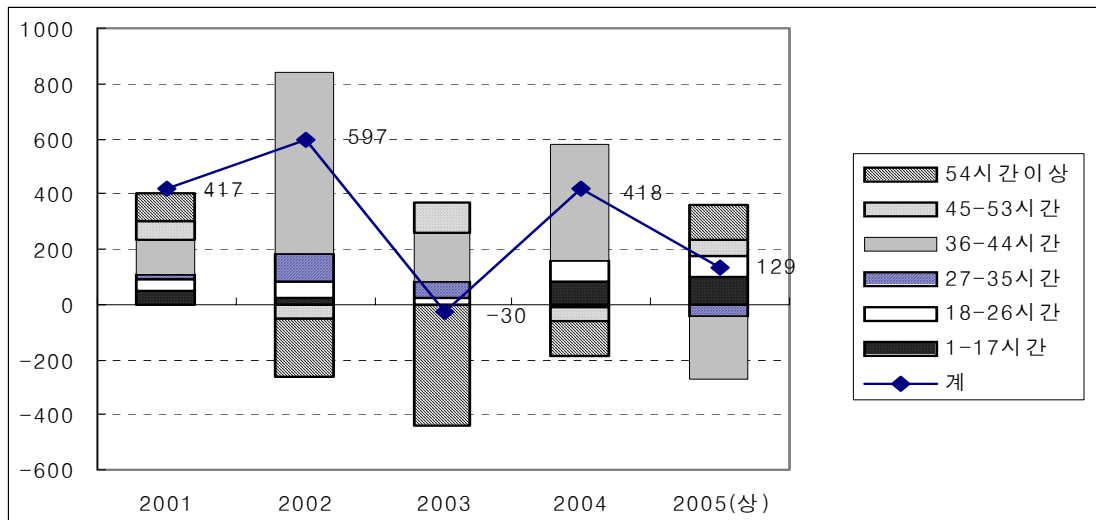
- 최근의 고용증가는 저부가가치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고부가가치 부문이라 하더라도 취약고용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짐.

- 일용근로자의 경우 2004년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특히 2005년 2/4분기의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SOC 투자와 부동산경기에 힘입어 4.9%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함에 따라 임시직보다 더 열악한 고용조건과 노동이동에 대한 관심이 요구됨.

- 또한 일용근로자의 증가와 맞물려 30시간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와 53시간 이상 장시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시휴직자도 급증하고 있어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3] 취업시간별 취업자의 일자리 변동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2005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고용사정도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 경제활동참가율이 62.1%, 실업률 3.7%¹⁾, 고용률 59.8%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성장 전망이 연초 전망치(경제활동참가율 62.2%, 실업률 3.6%, 고용률 60.0%)보다 하향조정된 것을 반영하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하향조정, 실업률은 근소하게 상향조정된 수치임.

- 특히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을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여성고용 확대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통계청은 2005년 6월부터 공식적으로 '지난 4주간 구직경험 여부'를 이용해 실업자를 집계하는 방식을 사용함. 따라서 '지난 1주간 구직경험 여부'를 토대로 실업자를 정의하던 그간의 고용통계 수치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취업자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 및 실업률이 0.1~0.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글에서는 과거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1주간 구직경험'을 이용하는 과거 방식의 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함.

<표 1> 2005년 주요 고용지표 전망

(단위: 천명, %)

	2004			2005						
	상반기	하반기	연간	1/4	2/4	3/4p	4/4p	상반기	하반기p	연간p
경제성장률	5.4	3.9	4.6	2.7	3.2	4.0	5.0	3.0	4.5	3.8
경제활동인구	23,256	23,484	23,370	23,159	23,957	23,855	23,992	23,558	23,923	23,741
참가율	61.8	62.1	62.0	60.9	62.6	62.3	62.6	61.8	62.4	62.1
취업자	22,424	22,690	22,557	22,247	23,126	23,014	23,103	22,686	23,058	22,872
(증가율)	(2.1)	(1.7)	(1.9)	(0.6)	(1.7)	(1.6)	(1.6)	(1.2)	(1.6)	(1.4)
(증감수)	(456)	(380)	(418)	(142)	(382)	(367)	(370)	(262)	(369)	(315)
실업률	3.6	3.4	3.5	3.9	3.5	3.5	3.7	3.7	3.6	3.7
고용률	59.6	60.0	59.8	58.5	60.4	60.1	60.2	59.5	60.2	59.8

주: p는 전망치임.

○ 최근 경제의 고용창출 잠재력이 급속히 소진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지원정책이 양적인 의미에서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고용의 질 및 고용안정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그러나 정부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의 시장동력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수적으로 고용을 늘이는 것 외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조업과 잠재적 수요가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부문에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함.